

순천 대규모 야시장 조성사업 첫 단추

각감됐던 예산 19억원 추경으로 시의회 통과
푸드트럭 50대 등 운영...대상자 선발 등 관건

순천시의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야시장 관련 예산 19억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기존 야시장 야시장과 오천지구 상권이 충돌하고 동천변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예산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의회 지적사항을 말씀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주변 지역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동천 출렁다리 이용자의 접근성과 동천변 저류지 공원화 등을 고려할 때 동천변 저류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아랫간과 오천지구 상인들의 불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상인회나 상가변영회 임원들 중심으로 설득이 이뤄졌고 그들만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소음공해, 쓰레기 및 음식물 냄새,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된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순천시가)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든다. 보다 시간을 갖고 토론 과정을 거쳤으면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푸드트럭과 플라마켓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장한다.

비교적 많은 혜택과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야시장 사업이기에 인맥 등을 통한 불공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참가자 선발을 두고 여수를 비롯한 다른 시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있어 왔다.

순천시는 참가자격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가와 시민평가가 이뤄지는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게 20대, 급여성·다문화가족·다자녀 부모 및 차상위 계층에게 10대 등 사회적 약자에게 30대의 푸드트럭이 배정된다.

야시장 사업은 허석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조성해 관광객을 머무르는 관광경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1톤 트럭 50대를 개조한 푸드트럭과 60개의 플라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 기업들 경기전망 '비관적'

광양상의 조사, BSI 지표 대부분 하락

광양지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양상의가 관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광양시 기업경기전망지수가 63.5%로 전분기(61.2%) 대비 2.3% 포인트 상승했으나 2분기 연속 60%대를 나타내며 제4분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수 침체와 수출 위축 등 경제전망도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심리가 높아 있는 것으로 기업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분기의 경우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15.4%,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인 반면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는 악화(51.9%)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조달 여건 BSI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었다(36.5%)'와 '그렇지 않다(6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방역물품 부족

(46.7%),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23.3%), 수출 감소(16.7%), 물류·통관 문제(6.7%)와 중국산 부품·자재조달 어려움(3.3%)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응답이다.

과거와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더 크다(25.0%), 유사하다(48.1%), 더 적다(26.9%)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서는 더 크다(30.8%), 유사하다(50.0%), 더 적다(19.2%)로 응답했다.

과거 전염병(메르스·사스)과 비교해서는 더 크다(52.0%), 유사하다(36.5%), 더 적다(11.5%)로 나타나 심리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금융·세제 지원(41.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재상태를 수치화한 것으로 0-1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고흥 청년 어촌정착 '안정적' 20명에 2억500만원 지원

고흥군은 29일 올해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촌정착 지원금 선발 대상자 20명이 어업경영비 및 가계자금 2억5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으로 지역 및 귀어인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총 28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매월 어업경영비 및 여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 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 차등 지급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 2월 2020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00억원(창업 96, 주택 4.5) 규모의 43명(37, 주택 6)에 대해 어촌정착 창업을 지원했다.

올해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에게 종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정착사업과의 연계성을 도모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곡성군은 최근 석곡면주민자치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석곡에서 on DO시락' 사업을 추진해 지역소외계층에 식재료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석곡에서 on DO시락' 사업 호평

소외계층에 쌀·김치 등 전달

"아이고~이거 받아분께, 잠말로 든든해요. 고맙당께."

지난 27일 곡성군 석곡면 월봉리에 홀로 사는 황두에 할머니(77)는 따뜻한 선물상자 하나를 받았다. 쌀과 김치, 잡채 등 식재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향균비누 등이 가득한 선물꾸러미가 집

로 배달된 것이다.

곡성군은석곡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시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석곡명장 김정섭, 장순중)가 함께한 '석곡에서 ON DO시락'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위해 옥과면에 위치한 썬맛있는 김치에서는 600kg의 김치를 기부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

원들은 기부받은 김치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담아 선물꾸러미로 제작했다.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꾸러미들은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10 가정에 전달됐다. 특히 석곡명장은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가구와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찾아 직접 선물박스를 전달하며 정을 나눴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중국 선전시, 광양에 마스크 11만장 지원

광양시는 최근 중국 자매도시 선전시로부터 코로나19 구호물품으로 일반 의료용 마스크 11만 장을 지원받았다. (사진)

선전시는 인구 2,000만명의 중국 최대 이민 도시로 중국 내에서도 후베이성 외에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인 광양시를 돕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했다.

천루꾸이 선전시장은 "우호적인 광양 시민과 따뜻한 위로와 성원을 보낸다. 양시가 서로 응원하고 손을 맞잡으면 반드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모든 광양시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내용의 친필 서한문을 전달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전시와 광양시는 어려움 속에서 양 시의 우정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전시는 자체 마스크 수급이 여의지 않아 3월 중순에 확보한 일반 의료용 마스크 3만장을 우선 보내고, 나머지 8만장은 3월 말까지 확보해 추가로 광양시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순천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순천경찰서는 최근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설됐다.

순천경찰서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및 여성들의 심정을 헤아려 2차 피해자

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재호 서장은 "이번 현판식을 이후로 설치되는 특별 수사단은 디지털 방식으로 조직화·홍포화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순천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보성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정비·점검

보성소방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26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해 원활한 급수지원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화전 주요 부분(관구, 스프링 등) 중점 확인 ▲소

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 ▲매물, 단수, 임시 폐쇄 현황조사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금지 단속 등이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는 현장 활동에 중요한 사항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가 금지돼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백중두 기자



구례 유흥·노래연습장 운영중단 결의

구례군은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례군 관계자와 유흥·단란주점 등의 대표자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속히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구례를 지킨다는 뜻으로 전체 업소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의했

다. 특히 정부 제한명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코로나19 종식을 바란다면 전체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례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